

국가AI전략위원회, 외교부, KOICA와 함께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ODA’ 세미나 개최

- AI와 ODA의 융합을 통한 창의적·포용적 ODA 추진 방향 논의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12월 4일(목) 사회분과 주관으로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ODA’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AI 시대의 국제개발협력 방향을 논의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창의적·포용적 국제개발 협력(이하 ‘ODA’) 추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세미나에서는 교육·보건·행정 등 개도국이 직면한 주요 사회·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AI가 핵심 도구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참석자들은 ODA에 AI를 활용할 경우 △정확한 문제 진단, △현장 맞춤형 해결책 제공, △사업 실행 속도 향상 등을 통해 기존 ODA의 한계를 넘어서는 효율성과 효과성 확대가 가능함을 강조했다.

AI를 활용한 ODA가 한국과 개도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상생적 협력 모델이라는 점도 강조됐다. 개도국은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디지털·AI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은 ODA 과정에서 축적되는 경험과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글로벌 협력과 기술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 양측 모두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는 평가가 제시되었다.

임문영 상근부위원장은 “AI는 교육·보건·사회서비스 등 기본적 삶의 영역을 근본적으로 혁신할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한국이 추진하는 AI 기본사회 모델이 ODA와 결합할 때 개도국의 삶을 개선과 함께 한국의 AI 경쟁력을 높

이는 상생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해 AI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국제협력 패러다임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앞으로 외교부, KOICA와 협력해 개도국의 디지털 전환·AI 역량 강화 등을 중심으로 AI 기반 ODA 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할 계획이다.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사회산업팀	책임자	팀 장	문경준 (02-2224-4151)
		담당자	사무관	송진성 (02-2224-4153)

내일을 만드는 과학기술
내일을 채우는 디지털·AI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참 고

글로벌 AI 기본 사회와 ODA 세미나 사진





